

# 大學院 博士課程 改善을 위한 提言

李 延 燮  
(中央大 幼兒教育科)

高級人力生産의 海外 依存度를 줄이고 국내에서의 博士學位 수여의 질을 높여 우리 손으로 고급인력을 생산하자는 열기가 높다. 문제의 핵심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에 있으며, 외적·행정적 통제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 1. 머리말

高級人力生産의 海外 依存度가 너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이제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고급인력을 생산하자는 열기가 높다. 그 방법의 하나로 國內에서의 博士學位 수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수, 박사과정 학생수 및 박사학위 수여 현황을 <표 1> <표 2> <표 3>에 실었다. 또 이를 도표화하여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 제시하였다.<sup>1)</sup> <표 1>과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79년을 기점으로 박사과정 개설 학과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생수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舊制 博士의 큰 물결이 스쳐간 '75년 이후 '78년까지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75년 1,519명의 박사과정 학생수가 '85년에는 10,480명으로 약 7배로 증가했으며 '65년 244명에서 '75년 1,519명으로 6

배의 증가를 보였다. 같은 기간에 박사과정을 개설한 학과수는 '65년에 166개 학과, '75년에 422개 학과로 약 2.5배, '85년에는 1,015개 학과로 다시 2.5배로 늘었다. 학생수의 증가가 학과수의 증가를 훨씬 앞지르는 것은 대학마다 교

<표 1> 전공계열별 박사과정 학생수

연도	어문·사 인문계	사회·사 법계	자연계	예술· 체육계	의학계	계
1985	1,910	2,377	3,772	96	2,325	10,480
1984	1,737	2,037	3,337	62	2,198	9,442
1983	1,528	1,657	3,073	40	2,179	8,477
1982	1,265	1,314	2,652	26	1,957	7,214
1981	962	971	2,020	13	1,612	5,578
1980	699	653	1,385	4	1,297	4,038
1979	489	503	1,011	—	1,032	3,035
1978	384	393	764	—	972	2,513
1977	354	368	675	2	828	2,225
1976	293	288	565	2	748	1,896
1975	243	240	433	1	601	1,519

1) 여기에 실은 통계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통계자료집」(미발간 자료)에 터한 것임.

〈표 2〉 연도별 박사과정 개설 학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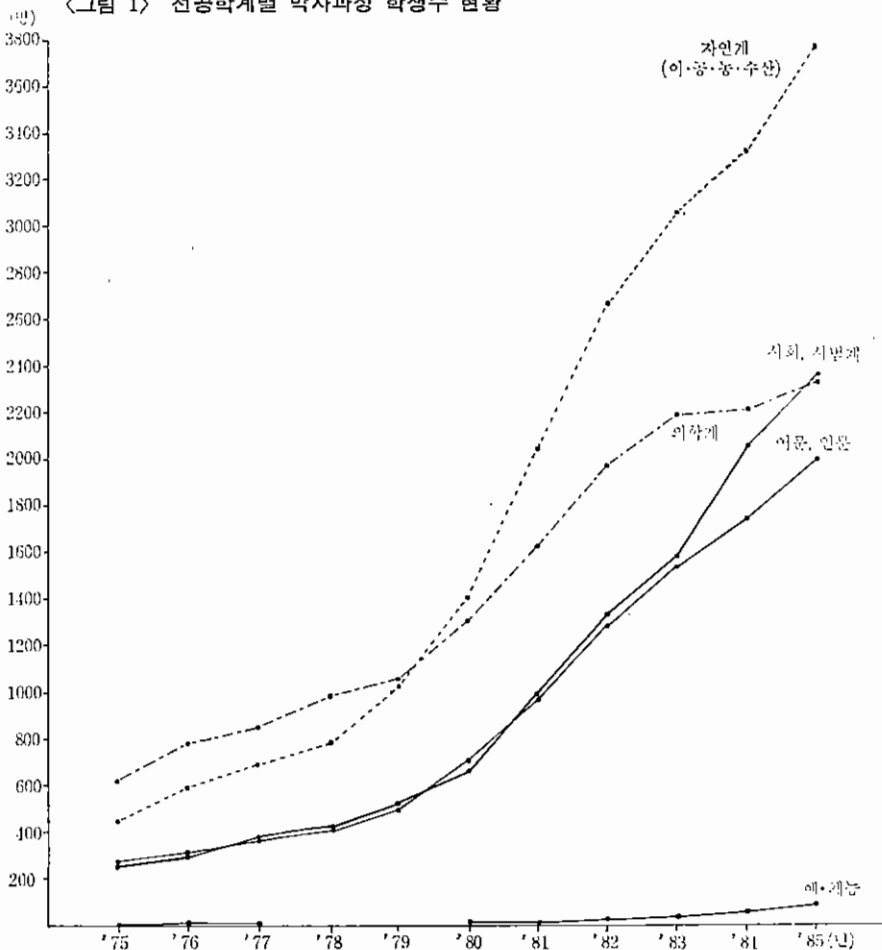
연 도	박사과정	연 도	박사과정
1985	1,015	1974	403
1984	917	1973	331
1983	834	1972	298
1982	807	1971	289
1981	738	1970	281
1980	649	1969	249
1979	542	1968	251
1978	489	1967	251
1977	467	1966	209
1976	441	1965	166
1975	422		

〈표 3〉 연도별 박사학위 수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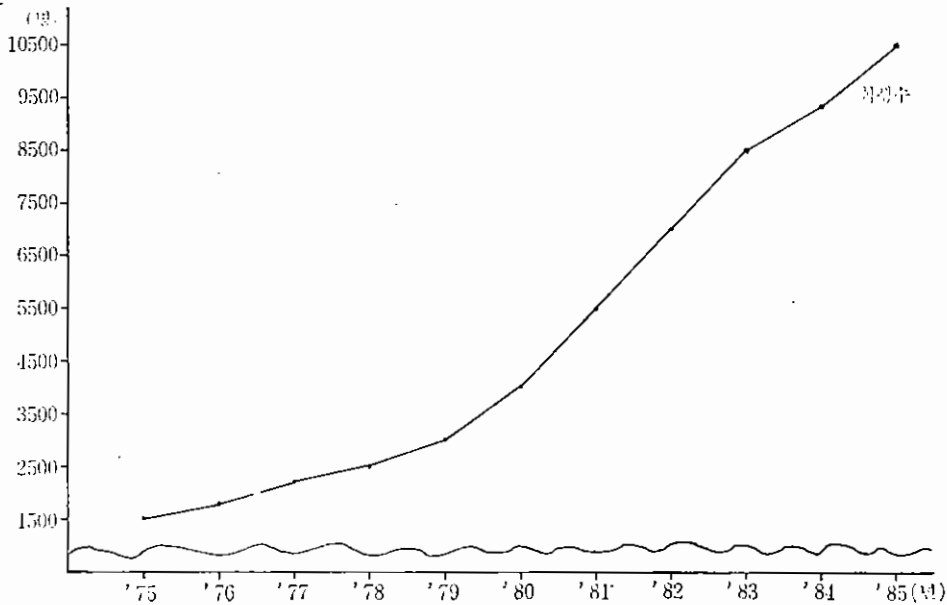
연 도	수여자수	연 도	수여자수
1985	1,400	1973	751
1984	1,109	1972	452
1983	845	1971	349
1982	610	1970	407
1981	589	1969	441
1980	528	1968	430
1979	572	1967	323
1978	159	1966	148
1977	150	1965	117
1976	537	1964	190
1975	994	1963	161
1974	332	1962	38

수요원의 조건으로學位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박사학위 지망생이 급속히 증가한 때문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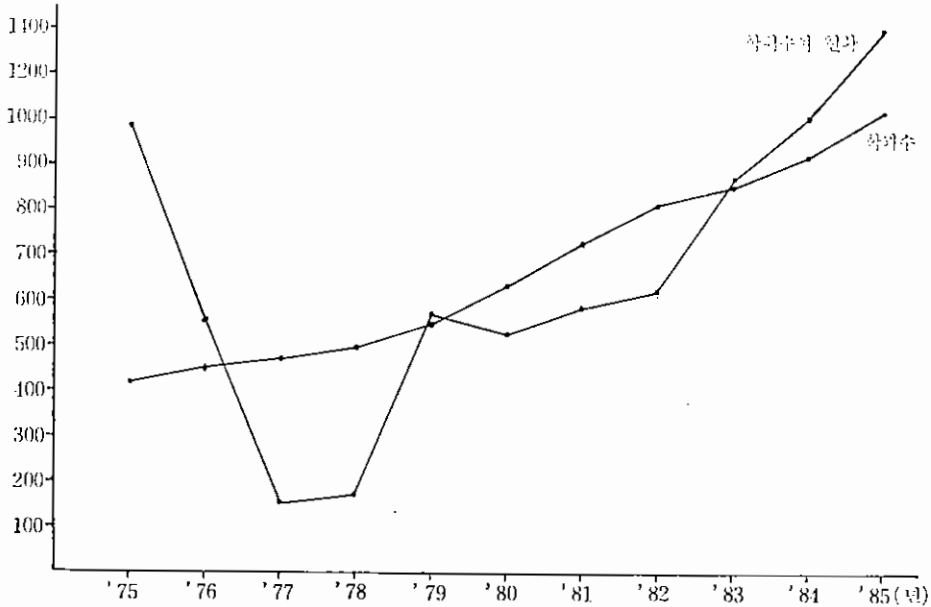
〈그림 1〉 전공학계별 박사과정 학생수 현황



〈그림 2〉 전체 박사과정 학생수 현황



〈그림 3〉 연도별 박사학위 수여수 및 박사과정 학과 개설 현황



博士學位 수여 현황을 보면 舊制 博士 물결이 지나간 후인 '77, '78년에 저조한 후 '79년부터 '82년까지 500~600명선이던 것이 '82년부터 급상승하여 新制 博士의 배출이 돌보이고 '85년에는 1,400명의 새로운 박사가 배출되었다. 이러

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점 이수를 끝낸 학생을 제외한 것인지 포함한 것인지는 통계자료에서 분명하지 않으나 '85년 박사과정에 등록된 학생은 10,480명으로 앞으로 박사학위 취득자는 양적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여성의 진출이 뚜렷하여 '75년 92명이었던 등록생이 '85년에는 1,420명으로 무려 15배 정도 늘고 있어 전체 증가 추세를 배로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몇 년내에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3,000명을 곧 뛰어넘을 것이고, 이것은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전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수 현황은 앞의 <표 1> <그림 1>과 같다. 자연계의 학생수가 '79년 이후 정부의 시책에 힘입어 다른 어느 계열보다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의학 계열이 늘 죄다 학생수를 점해 오던 것이 이제는 자연계로 그 자리를 내주었고 사회 및 사범계열이 '85년에는 의학 계열을 능가하고 있다.

박사과정 지원자 현황을 <표 4>에서 보면 '85년에 약 9,000명이 지원하여 3,600명 정도가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박사과정 입학 자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증가는 박사과정 지도교수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박사과정뿐 아니라 석사과정의 학생수도 급속히 증가하여 '85년 현재 57,698명이 등록하였고 이것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85년 한 해에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8,994명이다. 이러한 현상은 곧 대학원 학생의 지도 및 심사에 대한 교수부담물을 급증시키고 있다.

앞에서 대략 살펴보았지만 박사과정 등록생과 학위 수여자의 양적인 팽창은 곧 질적 수준의 향상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양적 팽창이 반드시 질적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수가 적다고 반드시 질적으로 우수한 것도 아니다. 질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대학의 풍토가 더 문제가 될 것이다. 대학별, 계열별 또는 과별에 따라 그 상황이 다를 것이지만 필자가 직·간접으로 경험하면서 느낀 바를 제언 형식으로 적어 보고자 한다.

<표 4> 연도별 석·박사 지원 및 입학자수

	입 학 원 황							
	석 사 과 정				박 사 과 정			
	지 원 자		입 학 자		지 원 자		입 학 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85	65,756	12,130	25,790	5,112	8,994	1,408	3,591	523
1984	48,147	9,640	23,598	4,674	7,762	1,109	3,396	469
1983	43,665	8,434	22,315	4,381	6,073	816	2,912	380
1982	42,763	7,659	22,489	4,161	5,182	612	2,848	340
1981	41,768	6,963	20,194	3,543	4,537	509	2,600	288
1980	32,186	5,708	15,310	2,975	3,018	300	1,757	177
1979	22,343	3,965	11,695	2,096	2,115	203	1,226	117
1978	14,861	2,479	8,566	1,576	1,521	116	889	67
1977	12,391	2,115	7,247	1,305	1,402	103	754	51
1976	10,496	1,601	6,273	1,029	1,349	66	617	40
1975	10,113	1,590	6,070	1,032	1,068	55	687	40
1974	7,812	1,472	5,597	1,045	1,300	118	471	25
1973	7,758	1,382	5,064	961	474	33	319	21
1972	6,797	993	4,381	685	372	14	274	11
1971	5,659	796	3,503	595	322	21	241	15
1970	4,777	534	3,007	377	322	10	219	7
1969	3,813	438	2,590	283	237	9	176	7

## 2. 박사과정 入學試驗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시험 과목이다. 현재 영어, 전공, 제 2 외국어로 되어 있는 현 입시과목은 달라져야 한다. 외국의 경우 성적과 추천서 그리고 GRE 나 GMAT 등 언어력과 수리력을 검사하여 입학할 결정한다. 즉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재어 그것으로 입학시험을 대체한다. 제 2 외국어는 입학시험에 요구하지도 않으며 입학 후에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학점을 더 이수하게 하니 제 2 외국어가 필요한 사람만 그 과목을 택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박사과정에 자기 나라 말인 국어가 들어가 있지 않음은 이상하다. 마치 국어는 시험을 칠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아예 제외되어 있고 영어가 국어인 것처럼 강조되고 있다. 물론 세계의 70%가 쓰는 영어를 요구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입학시험에 제 2 외국어 대신 국어를 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외국어에 들이는 정력으로 영어와 국어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에 따라서는 영어 이외의 다른 나라 말을 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학교수 중에 제 2 외국어를 하는 교수가 몇이나 있는가? 그들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제 2 외국어를 하지 않았으면서 왜 학생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가? 실제로 제 2 외국어의 필요를 느끼는 교수는 몇이나 되는가? 제 2 외국어를 꼭 해야 할 과에서만 요구하던 어떨까?

국어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논문 작성을 국어로 하게 되어 있으며 자기의 생각을 국어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인데도 너무나 우리나라 말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전공과목의 시험은 대체로 지식을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과의 교수들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득을 보는 경향이 높고 장차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 정확한 연구가 없어 인용하기 어렵지만 박사과정에 입학하려면 동일 계통의 석사 논문을 써야 하고 동일 계통의 직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구 사항이라면 굳이 전공과목을 입학시험 과목에 넣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전공과목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수들의 재량권이 더욱 증가되고 그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GRE가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사과정의 성적과 연구 논문의 질 그리고 추천서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 그 분야의 교수들이 또는 어느 교수가 특별히 그 학생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필자가 외국에서 교편을 잡을 때(그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는 60명이었다) 매년 입시철이 되면 자기 분야의 입학 원서를 놓고 여러 각도에서 보고 선정한다. 교수 1인당 박사과정 학생수 1.5명으로 하며 현재 재학생이 그 FTE(full time equivalent)를 넘으면 학생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학점만 이수하면 일단 T.O.에서 제외하여 심한 적체 현상을 빚기도 하며 입학시 기준이 애매한 점이 있어 엉뚱한 학생, 예를 들어 제 2 외국어를 잘 치른 학생이 들어와 허덕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박사과정 입학 시험에 대한提言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提言 1. 入學試驗에서 제 2 外國語를 부과하거나 입학 후에 요구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提言 2. 入學試驗은 잠재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어야 한다. 외국의 GRE처럼 예언도가 높은 검사의 개발이 시급하다.

提言 3. 國語시험을 入學試驗에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提言 4. 專攻科 試驗은 그 信賴度, 妥當度가 의심되므로 서류전형으로 대체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며 실제적인 선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 2 외국어까지 해야 하는 부당한 요구나, 많은 學科에서 그렇지만 자기 대학 출신 중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만을 뽑으려는 주관적 선발 경향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잠재력과 관계 없이 교수의 선호만으로 학생을 뽑는 것이 결코 교수의 자율권은 아닌 것이다.

提言 5. 教授當 FTE를 지정하여 教授對博士課程學生比를 줄여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과목 이수자를 T.O.에서 제외함으로써 박사학위 논문만 남겨 놓은 학생이 계속 정제되고 새로운 학생이 계속 들어오는 기현상과 아울러 경영자의 입장에서 대학원 박사정원을 꼭 채우려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외국과는 달리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대외적으로 어떤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실정에서 입학 자체에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Candidacy(종합시험 합격자, 또는 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자)가 되기 전에는 박사과정 이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3. 博士課程

일단 入學이 되면 대략 40에서 50학점 사이의 학점을 4~5학기에 듣게 된다. 이 학점을 이수하고 소위 종합시험을 치고 나면 논문 제출 자격을 주게 된다. 대체로 현직에 있는 사람이 많아 과목 자체 또는 자기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가 없다.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적 통제의 문제는 많다.

提言 6. 박사과정의 이수과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 이수과목은 대략 15과목 내외로 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 과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60~90학점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다. 학점 높이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에서는 논문 제출 전까지 전문지에 2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2~3년간 과목을 이수하고 그것도 직장을 다니면서 이수한 뒤 요식행위인 종합시험을 치르고 나 몰라라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논문 제출 마감 연도에 와서 부랴부랴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로는 박사과정 이수 후 논문 제출 때까지 거의 지도교수와의 접촉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논문 제출시까지 계속해서 '개인 연구'라는 과목으로 계속 수강을 하도록 강요할 필요가 있다.

提言 7. 종합시험(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치를 때에는 박사학위 논문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논문계획서의 통과 없이 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다. 논문이 박사학위의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것이 박사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박사과정 과목 이수를 끝내면서 논문 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논문 계획서가 통과되었을 때에 한해서 종합시험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提言 8. 論文審査委員은 論文 계획서 제출과 함께 구성되어 論文의 最終 심사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지금은 論文提出이 있는 후 심사위가 구성되어 5회에 걸쳐 심사하게 되어 있다. 심사 회수가 많다고 해서 논문 심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논문이 제출된 상태에서 그 논문을 보완하기란 어렵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논문 계획서 단계이다. 그때에 제대로 되어야 뒤에 가서 별 탈이 없는 것이다. 이 위원회의 구성이 논문 프로포절 단계에서 구성되어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중간 점검을 함으로써 마지막 논문 심사는 단 1회로써 끝날 수 있게 된다. 장기간에 걸친 집단지도를 통하여 논문의 질이 그만큼 다져질 수가 있는 것이다.

提言 9. 박사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은 일정기간 직장으로부터 해방되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을 갖고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Part Time Student 인 것이다. 박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요인을 흔히 세 가지로 든다. 하나는 시간, 다음은 돈, 다음은 건강이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박사과정에 들어오면 적어도 2년간 오직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사과정에 충분한 장학금을 주고 직장에서는 휴직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현 여건으로 사표를 내고 대학원을 다니기는 어렵다.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사표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다. 2년이 너무 길다면 적어도 1년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겠다. 1년도 너무 길다면 적어도 반년이나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치가 없이는 박사과정은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계절의 변화도 모르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도 관심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提言 10. 대학원 과정을 둔 학과에서는 교수의 증원이 시급하다.

과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단과대학에 교수의 총수가 외국 대학의 한 과의 교수 수만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3~4명으로 학부,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과내에서 한 교수 한 전공 분야의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교수의 부족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급증하는 석·박사 학생 수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고 결국 교수들의 능력 한계를 벗어나 교수들의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빚는다. 우리의 현실이 대학의 교수 증원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대학원 과정을 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원별로 교수의 T.O.를 늘려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원 증파에 따른 교수 T.O.의 증가는 거의 없었으며 주로 기존 교수들을

재활용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서 전문대학원의 전임교수 T.O.를 가진 대학이 몇 개나 있으며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두면서 일반대학원의 교수 T.O.를 독립적으로 가진 대학은 몇 개나 되는가? 이것은 대학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나 대학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가장 나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없이는 대학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고 본다. 대학원 등록금이 50~80만 원 사이인데 그 많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서 교수를 증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더우기 근래에 이르러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고급인력이 대학과 연구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몇 년씩 놀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교수들의 봉급 인상을 동결해서라도 이 고급 인력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4. 맺음말

이상으로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제언을 하여 보았다. 지금까지 교육의 문제를 논할 때 주로 대학입시나 과밀학급 또는 재정 또는 초·중고의 교육과정이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대학원에 관한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되거나 교육문제로서 부각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문제의 핵심은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으며 외적, 행정적 통제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